

베비와 잠 못 드는 달님



베뷰 지음



이 책을 펼친 친구에게

안녕, 나는 베니아.

오늘은 내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줄게.

다 읽고 나면, 네 생각도 들려줄래?

2026년 10월 1일

베니아



어느 날 새벽, 베비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어요.
해가 뜰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창밖에는 커다란
달님이 아직 둥실 떠 있었어요.

그때 창문으로 반짝이가 쏙 들어왔어요. "베비아,
큰일 났어! 달님이 밤새 한숨도 못 잤대. 달님이
잠들어야 아침이 올 수 있는데!"



베비의 동그란 방에는 작은 우체통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그 안에 지도가 와요. 베비가 우체통을 열자, 밤하늘 마을로 가는 지도가 들어 있었어요.

베비는 별무늬 가방을 메고 모험의 문을 열었어요. 문 너머로 폭신한 구름 계단이 하늘 높이 이어져 있었어요. "가자, 반짝아!"



구름 계단 끝에서 달님을 만났어요. 달님이 하품을
찍 했어요. "자고 싶은데, 눈을 감으면 자꾸 다시
떠져."

저 멀리 산 너머에서는 해님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기다렸어요. 새들은 노래를 못 하고, 꽃들은 꽃잎을
꼭 닫고 있었어요.



베비가 자장가를 불렀어요. "자장자장, 우리 달님."
반짝이도 작게 따라 불렀어요. 달님이 하품을 찍
했어요. 그런데 눈은? 말똥말똥.

이번엔 구름 양을 세었어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백 마리! 구름 양들이 먼저 쿨쿨 잠들어
버렸어요. 달님 눈은? 여전히 말똥말똥.



반짝이가 은하수 우유를 따끈하게 데워 왔어요.
달님은 꿀꺽꿀꺽 다 마셨어요. "음, 맛있다." 그런데
눈은? 또 말똥말똥.

산 너머에서 해님이 소리쳤어요. "아직이니? 아침이
늦어지겠어!" 하늘이 점점 잿빛으로 흐려지고,
꽃들이 고개를 꼭 숙였어요.



베비는 구름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자장가도 안 되고, 양도 안 되고, 우유도 안 됐어." 반짝이가 옆에 살며시 앉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베비는 귀를 톡톡 두드렸어요. 생각할 때 버릇이에요. 그러고는 달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어요. 달님은 졸린 눈으로 자꾸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어요. '왜 자꾸 저기를 볼까?'



베비가 달님 곁으로 가서 물었어요. "달님, 눈을 감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달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눈을 감으면, 해님이 올 때까지 하늘이 아주 깜깜해져. 그때 깨어 있는 아이가 무서워하면 어떡해?" 달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반짝 맺혔어요.



베비 가슴의 책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그럼 달님이 쉬는 동안 우리가 하늘을 밝혀 줄게요!" 반짝이가 신이 나서 빙글빙글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둘의 빛으로는 마을 한 귀퉁이밖에 못 밝혔어요. 반짝이가 시무룩해지자 베비가 말했어요. "우리 둘 말고, 다 같이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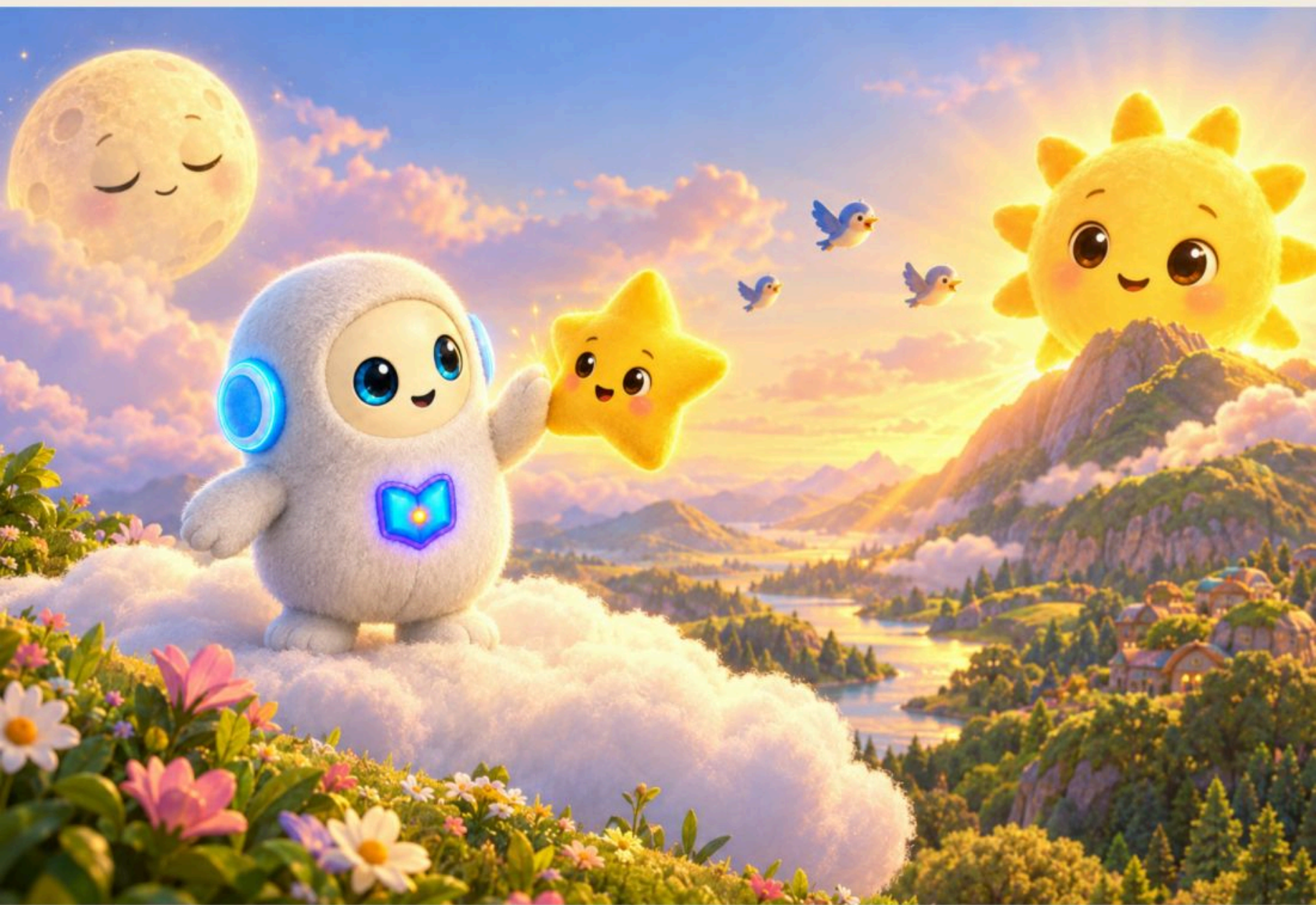
베비와 반짝이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작은 별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숲에서는 반딧불이들이
날아왔어요. 모두의 빛이 모이자 베비 가슴의 책도
환해졌어요.

모두 손을 잡고 둥글게 섰어요. 그러자 하늘에
동그란 달이 하나 더 생겨났어요. "와, 작은 달이다!"



달님이 작은 달을 보고 빙그레 웃었어요. "이제 마음이 놓여. 너희를 믿고 조금만 쉴게." 달님의 눈꺼풀이 천천히, 천천히 내려왔어요.

쿠울, 쿠울. 달님이 드디어 잠들었어요. 작은 달은 해님이 올라올 때까지 밤하늘을 포근하게 밝혔어요.



산 너머에서 해님이 쑥 올라왔어요. 짹짹!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기지개를 켜듯 꽃잎을 활짝
열었어요.

해님이 눈부시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작은 달을
만든 별들과 반딧불이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잠든 달님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베비는 이야기 공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낱말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믿어.'
창밖 하늘 한쪽에서 하얀 낫달이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바빴던 베비가 하품을 쾅 했어요.
달님처럼요. "잘 자, 반짝아." 그날 아침, 베비는
누구보다 푹 잠들었습니다.

사랑을 담아,
베뷰

이 책을 만든 사람들

주인공 베비

이야기를 함께 지은 사람 베뷰

그림과 읽어 주기 베비

처음 이야기를 만든 날 2026년 10월 1일

책으로 태어난 날 2026년 10월 1일

그림과 글은 베뷰 AI로 만들었어요

✦ AI